

2024. 5. 8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

대기정책과장

사창훈

02-2133-3630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배출관리팀장

장지선

02-2133-3624

서울시,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 원격 모니터링 본격 추진




(사물인터넷)

- 서울 시내 부착 대상 총 807개 사업장 중 422개 부착... 내년 6월까지 의무 설치
- 30분마다 환경부로 '대기배출 시설 가동현황' 전송돼 사업장 배출현황 실시간 확인
- 시 "기후위기 극복뿐 아니라 시민 건강 위해서도 대기배출 시설 다각적 관리할 것"

-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장에 '사물인터넷(Internet of Things(IoT)) 측정기기'가 의무 부착돼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확인, 보다 효과적인 지도·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.
- 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'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'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4월 현재,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.
- 지난 '22년 5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(서울 시내 총 807개소)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.

- 전류계·차압계·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‘사물인터넷 측정기기’를 통해 30분마다 환경부 ‘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’으로 데이터가 전송, 이를 통해 시·구 담당자는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.

〈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성〉

측정항목	통신	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
 <p>전류 차압 pH 온도</p>	 <p>IoT 게이트웨이 VPN 통신망</p>	

-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원격 모니터링은 ‘서울시-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-자치구’ 3자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.
- ‘서울시-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’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,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한다. ‘자치구-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’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, 원인분석을 통해 시설 개선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.
- 시는 향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와 기술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다.

- 또 시는 ‘사물인터넷 측정기기’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90%를 지원하여 조속히 대상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.

-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“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·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 배출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기후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배출 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리하겠다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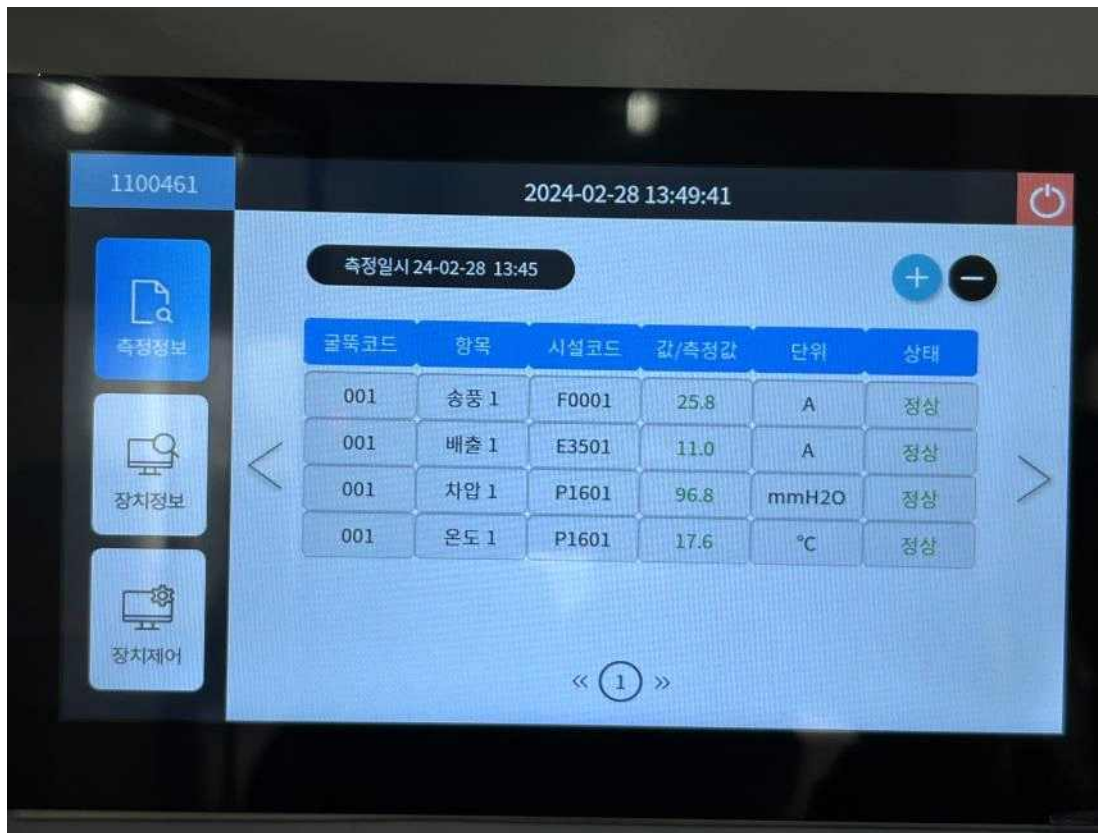
붙임1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진

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(차압계)

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(전류계)



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제어반